

# 한국 첫 생명공학 유니콘 기업 나왔다… 관절염 등 면역질환 치료 총 유니콘 11개 세계 5위



에이프로젠, 200억 규모 투자 유치  
가치 1조원 넘어 CB인사이트 등재  
지난 달 무신사 이어 국내 11번째

바이오시밀러 제조기업 에이프로젠이 ‘유니콘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11번째이자 최초의 생명공학 분야 유니콘 기업이다. 이로써 한국의 유니콘 기업 순위는 독일과 공동 5위에 올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에이프로젠이 11번째 유니콘 기업이 됐다고 밝혔다.

에이프로젠은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어 지난 9일 CB인사이트 유니콘 리스트에 등재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에이프로젠의 11번째 유니콘 기업 등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난 11월, 무신사가 10번째 유니콘 이 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새로운 유니콘이 탄생했다. 무신사는 지난 6일 주주총회를 거쳐 투자계약을 완료해 공식적으로 기업가치가 1조원을 초과했다.

에이프로젠은 바이오의약품 개발·생

산 기업이다. 김재섭 대표가 지난 2000년 카이스트 교수 재직 시 제넥셀을 설립한 후, 2006년 에이프로젠을 인수하면서 지금의 형태를 갖췄다. 주요 제품은 지난 2009년 자회사인 에이프로제제 약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등 자기면역질환 치료

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다. 바이오 시밀러는 생물의 세포나 조직 등의 유효물질을 이용해 만드는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이다.

중기부 조희수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에이프로젠은 바이오시밀러 세계 생산 3위 규모의 상당히 큰 기업”이라며 “현재 매출의 99% 가량이 일본 수출을 중심으로 발생하는데,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허가를 신청해 제품 임상 실험 중이어서 매출 상승을 기대해 투자받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에이프로젠이 11번째 유니콘 기업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별 유니콘 기업 순위는 미국(210개사), 중국(102개사), 영국(22개사), 인도(18개사)에 이어 독일과 함께 공동 5위로 상승했다. 지난 7월 독일의 유니콘 기업 신규 증가로 6위로 내려앉았던 것이, 무신사와 에이프로젠의 등재와 함께 다시 5위로 올라섰다.

에이프로젠은 국내 최초의 생명공학 분야 유니콘 기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유니콘 기업의 업종이 좀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등재된 국내 유니콘 기업은 주로 ICT 분야에 집중됐다.

유니콘 기업의 탄생 속도에도 가속이 붙었다. 과거에는 유니콘 기업이 늘어나는 데 1년 이상 소요된 것에 비해, 지난 2018년에 3개사, 2019년에는 5개사가 신규 등록되는 등 유니콘 기업의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왔을 때 6개였던 유니콘 기업이 지금 11개가 됐는데, 이미 유니콘

에도달했지만 아직 등재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기업도 한두 곳 있어 그 기업에 대한 재무 상태 등을 살펴본 다음 발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고,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20개 등재를 목표로 예비 유니콘 제도를 보다 더 활발하게 만들어서 기업의 발굴·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metroseoul.co.kr

## 벤처창업 진흥 금탑훈장에 ‘가스트론’

〈가스 감지기 국산화 기업〉

### 2019 벤처 어워드

벤처천역기업 587개 전년比 15개 ↑



/벤처기업협회

한 해 동안 대한민국 벤처창업 생태계 발전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포상하는 ‘2019 벤처창업진흥유공시상식’이 열렸다. 최고 훈격인 금탑산업훈장은 산업용 가스 감지기 국산화 기업 가스트론이 받았다. 아울러 지난해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한 ‘벤처천역기업 기념식’도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양재엘타워에서 ‘2019 벤처창업진흥유공시상식 및 벤처천역기념식’을 개최했다.

최고 훈격인 금탑산업훈장은 최동진 가스트론 대표에게 돌아갔다. 최동진 대표는 35년간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질관리로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산업용

가스감지기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했다. 아울러 안전기기 대표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김용을 피앤이솔루션 대표가 받았다. 김용을 대표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기반으로 전자장비·설비 산업 분야에서 1000억원 매출 달성을 고수출을 증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은 ▲무료 백신프로그램

‘알약’ 개발로 국민의 인터넷 사용 환경을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은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고효율 친환경 변압기 개발로 해외시장 개척에 성공한 장연덕 IEN한창대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벤처투자사업 발전에 기여한 백여현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가 수상했다.

이날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2018년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한 신규 벤처천역기업의 임직원을 축하하는 ‘벤처천역기업 기념식’도 열렸다. 2005년부터 조사한 벤처천역기업은 1회 이상 벤처확인을 받은 벤처출신기업 중 2019년 기준 매출 1000억원 이상을 기업을 뜻한다.

‘2019 벤처천역기업조사’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한 벤처출신기업은 587개사다.

/배한님 기자

## ‘상권 르네상스’ 5곳 선정… 골목 활성화

### 중기부-소진공 심의조정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9일 심의조정위원회를 열고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3차 대상지 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군산 공설상권 ▲부산 연일상권 ▲정선 아리랑상권 ▲관악 신원상권 ▲공주 산성상권이다.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낙후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단일시장·상점가 등을 중심으로 한 개별 지원에서 벗어나 침체된 전통시장과 주변의 골목상권 등 상권 전체를 대상으로 5년간 약 80억원을 지원한다.

할 계획이다. 부산 연제는 상권 내 연산교차로를 형상화한 오방색을 주요 테마로 오방길 빛 테마거리·연일시장 창업 몰 조성·오방 특화 관광상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강원 정선은 고객 유입을 위한 동선을 연결하고 정선 삼시세끼·정선 포레스트·알베르게(숙박·카페·펍) 등 지역 특색을 살린 고유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서울 관악은 도림천 축제·순대타운 특화 프로그램·서원동과 신원동 릴레이 공연 등을 진행한다.

충남 공주는 공주산성·제민천 등 역사·문화 요소를 활용해 백제 테마거리 를 조성한다. 아울러 공주 알밤한우·고막나루 브랜드 마케팅·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연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에 선정된 5곳의 신규 상권에 대해선 분야별 전문가 진단·자문으로 콘텐츠 중심의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해 추진한다.

/배한님 기자

행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 30곳의 상권을 선정한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5곳의 상권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2곳의 상권이 선정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원사업비는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등 상권환경개선과 테마존운영 등 상권 활성화에 맞게 활용한다. 지자체와 상인회 주도로 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구역을 조성하고,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힐링 등 종합 지원으로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상권으로 조성 할 계획이다.

전북 군산은 근·현대사 인프라 등의 지역 자원을 활용해 시간여행을 테마로 군산세느강 축제·군산형 백년가게 육성·제보선창 등 군산만의 특성을 개발

## 심승일 대표, 中企재단에 이웃사랑 성금

〈삼정가스공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인 심승일 삼정가스공업 대표는 10일 연말을 맞아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이웃사랑 성금 1500만원을 기부했다.

심승일 대표는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과 한국고압가스제조총연전협회 회장도 맡아 산업용 고압가스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승일 대표와 삼정가스공업은 병원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중증환자를 위해 의료용 산소기트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심승일 대표는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음지에 소외된 이웃들이 많이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삼정가스공업은 고압가스와 특수가스 등을 제조·총판하는 기업이다. 고압용기 6만본, 초저온용기 1만 2000본, 저장탱크 350기를 비롯해 수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인 심승일 삼정가스공업 대표가 10일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이웃사랑 성금 1500만원을 기부했다.

소·헬륨 카트리지를 포함한 탱크로리를 30여 대, 수송차량 및 영업차량을 100여 대를 보유한 강소기업이다. 삼정가스공업은 전국 5000여 고객사에 제품을 공급한다.

삼정가스공업은 지난 1989년 설립 후 본사를 포함해 전국에 8개의 계열사를 운영 중이다.

/배한님 기자

## 리큅, 미니밥솥·스팀다리미 선봬… 영역 확대

리큅은 생활가전 영역 확대의 일환으로 미니밥솥과 스팀다리미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미니밥솥 신제품 ‘미소쿡(美小COOK)’은 2.1kg으로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미소쿡으로 최대 4인분까지 밥을 짓을 수 있다. 기본 기능으로 백미부터 영양밥·죽·탕·찌까지 조리 가능하다. 보온은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다. 분리형 커버로 세척 편의성도 높였다.

신제품 핸디형 스팀다리미는 760g로 제품 무게를 가볍게 해 사용감을 높였다. 원버튼식 강약조절로 최장 약 20분간 연속으로 스팀을 분사할 수 있다. 특히, 착탈식 브러시로 세탁이 어려운 제



품들도 쉽게 관리할 수 있고, 셀프 스탠딩이 가능해 거치대 없이 보관·사용할 수 있다.

미소쿡과 핸디형 스팀다리미는 모두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색상이 출시된다.

/배한님 기자